

**문화특리**



**부안군 다문화가족 문화교육지원**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돕고자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부안 행복풍물 단과 어울림 태권도 교실 등 총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부안 행복풍물단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결혼이민자 및 지역 일반인들이 어울려 우리의 전통 풍물을 배우며 다문 화적 감수성을 표현해 상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기회를 마련코자 기획했다.

어울림 태권도 교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고유 문화의 기쁨을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 주체로 참여하고 담당 부안군민으로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문화가족이 부안에 정착해 행복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농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로 지역맞춤형 고품질 가공제품(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실시한다.

기술센터는 자가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산물 가공사업 아이템과 기술력 향상을 희망하는 농업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4월까지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기초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센터는 교육 운영과 관련 "농산물 가공 인허가 절차와 관련 법규, 위생관리, 마케팅, 실습 등 농업인들의 가공기술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해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생활지원팀(☎539-6271~3)으로 문의하거나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jongup.go.kr), 농민상담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농협 정기대의원회 개최**

김제농협(조합장 고성곤)은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회의실에서 정성주 김제시의회의장을 비롯 내빈과 농협 임직원 및 대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3기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산보고에 앞서 정성주 전임 조합장에게 공로패를 우수영농회장, 우수부녀회장 표창 및 우수조합원 저축보현상, 우수지원 공로상 등을 수여했다. 이어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현 이기환) 이임과 후임 상임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대의원들의 찬반부표로 선출된 박현남 신임 상임이사는 1983년 부터 30여년간 농협직원으로 근무했던 농협인이다.

고성곤 조합장은 "지난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산을 하도록 도와주신 4,000여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감사드리며 2016년에도 조합원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날 회의는 정진권 강원도대표회의장의 내빈 소개와 천만호 전국대표회의장의 개회사, 정진권 강원도대표회의장의 환영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시성 강원도회의장의 장, 김양호 삼척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정읍에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우천규 전국시군구의장협 전북대표회장, 전국 첫 지방자치제 ‘집강소’ 등 들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제192차 시·도 대표회의가 2월 23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15개 시·도 대표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양호 삼척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는 정진권 강원도대표회장의 내빈소개와 천만호 전국대표회장의 개회사 정진권 강원도대표회장의 환영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시성 강원도회의의장, 김양호 삼척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토의사항으로는 제대 전반기 시도

대표회의 개최장소 선정과 함께 지방자치회관 건립의 건을 토의하였는바 "지방자치회관 건립의 건"에 있어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회관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회관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만큼 특정 협의체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설립지역의 타당성 등 공론화가 필요하며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도를 제외한 기초단체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우천규 전라북도 대표회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정읍은 120년전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하여 왔던 집강소라는 형태의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며, 세계적인 단풍 관광 명소 내장산과 육연호 구월초공원, 무성서원과 호남제일의 정자인 피향정 등 천혜의 자연 및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된 정읍에서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점을 감안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생애 맞춤형 도시 용역 최종 보고서**

**고령화 사회 대비 케어에 초점**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실용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간부공무원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구종희 교수, 정읍시노인전문병원 김석남 원장, 성결대학교 연구총괄 임병우 교수(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총괄한 임병우교수는 향후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고, 동방문화대학원 대

학교 구종희 교수 등 외부전문가는 효(孝) 문화 중심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등 고령친화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읍시의 총 인구 대비 고령화율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서두를 꺼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하는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프로젝트는 우리시 정책적 아젠다(Agenda)를 실행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정읍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6%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정읍시는 일제강치 초고령사회에 대

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 지난 201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 도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생애 주기별 케어(Care)에 초점을 맞춘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정책수립에 매진해 왔다

시는 실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전북과학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 단위 최초 대학교 내 고령친화사업단 발족 및 고령친화사업단 지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 정읍시를 명실상부한 전국 유일의 고령친화도시 매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농협 당기순이익 23억 달성**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이라는 목표로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25일 제44기 정기총회 및 결산보고서에서 2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농민을 위한 농협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안 농협은 김원철 조합장(사진)을 비롯하여 남궁두 상임이사, 고득수 상임감사 등 112명의 임직원과 6,300여 조합원이 활활 뚝치 자산 3,000여억 원을 달성, 경영성과도 우수하여 총당금 적립을 비롯한 당기순이익 23억 원을 달성하여 출자배당 4억7천6백만원, 사업준비금 6억7천만원, 이용고배당 7억7천8백만원 등을 올려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부안 농협이 3개 지점과 하나로마트, 주유소, 영농자재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유통장 등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이용편익과 실익증진에 앞장서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으로 가격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 포골의 알탄가다스사와 업무재협약체결을 하여 1차적으로 조곡 36톤을 수출, 부안군의 농산물을 수출하기로 하여 농산물의 역 수출을 단행하는 초석을 놓았다.

이 밖에도 부안 농협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290ha를 조성해 균일한 유품을 생산하고 무인행기를 이용하여 공동방제를 실시 '천년의 숨새'라는 브



랜드를 출시하여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반상인으로 부터 높은 가격으로 판매,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려고

1억7백만원의 왕겨목초액과 톤백을 공급하고 6억3천만원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급하여 농가영농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역인재양성과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500명에 7억5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여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펼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 밀반찬 제공, 경로당 백미 제공 등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수익이 발생하면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농협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은 "작년에는 풍년농사를 이루었지만 재고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도 주변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라며 좀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재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농산물수출을 통해 농업인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교월동 삼영정화조, 쌀 기탁**

김제시 교월동에서 삼영정화조를 운영하고 있는 배도현 대표가 25일 교월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백미 10kg 52포(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제시 교월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배도현 대표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년전 부터 명절이나 연말을 이용하여 사랑의 쌀, 연탄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꾸준히 지원봉사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몸소 실

천해 오고 있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매년 전해주시는 삼영정화조 배도현 대표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보내주시 소중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월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날 기탁된 물품을 관내 경로당과 그룹홈 및 불우독거노인 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새학기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김제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2일부터 한 달간 등하교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시내권 어린이보호구역인 김제, 중앙, 김제 제동초 등 4개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주변 주정차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시간대 주정차 위반행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시 주정차위반 차량 등이다.

특히 어린이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10시, 오후 1시~3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하교시간에는 주 3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금번 새학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